

國立博物館에서 實施하고 있는 扶餘金剛寺址의 發掘調査는 四月初旬에 끝내려던 當初計劃을 變更해서 四月下旬까지 繼續되리라 한다.

—第五卷 第五號 通卷四十六號—

麻田影堂舊本 李穡肖像

崔 淳 雨



牧隱 李穡先生의 肖像은 서울 壽松洞 影堂을 비롯해서 德山 大田 韓山 安東 淸州 長湍 平山等 各地의 影堂과 祠堂에 各其하나씩 奉安되어 있다하고 또 國立博物館에도 大幅 하나가 있어서 高麗時代人物 肖像으로는 二例가 많은 便이라고 할 수 있었다. 이들 肖像은 그 그림의 古格으로 보나 像容의 技法으로 보나 그다지 오래고 뛰어난 것이라고 알려진 것이 別로 없었고 대개는 十八, 九世紀以降에 改摹된 平凡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왔었다. 그러던 것이 이번 우연히 韓山李氏宗家여러분의 配

慮를 얻어 서울 壽松洞影堂에 奉安된 肖像과 함께 이곳에 竝이 秘藏되어 있는 舊本影幀 세 폭을 拜觀할 機會를 갖게 되었다. 그중에서도 麻田影堂^① 舊本이라 고 불리우는 精妙한 筆致의 半身像의 存 在는 적지 아니 注意

를 끌게 해주었음으로 우선 여기에 이 麻田影堂 舊本의 大강을 써두는 것이다.

이 麻田影堂舊本이라 하는 것은 絹本淡彩에 上半身像 길이가 二八·五 cm 폭이 二四·九 cm 밖에 안되는 小像에 지나지 않는다. 그러나 그 像容 위에 歷歷히 生動하는 寬厚한 德氣라던지 혼한 近世 肖像에서는 도저히 보기 힘든 精氣있는 筆勢라던지 마치 牧隱先生의 學德과 性品을 아울러 傳神했다고 하리만치 뛰어난 솜씨를 보여주는 作品이라고 할 수 있다. 面相의 피부빛에 잘 調和되는 靑크色 公服과 열분 藍綠 목도리에 대모紅帶 등의 配色에서도 이 肖像의 古格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. 그리고 服飾과 構圖가 모두 牧隱과 同時代人인 崧陽書院本圖隱肖像하고도 흡사해서 이것이 麗末 肖像樣式의 一面을 잘 傳承한 좋은 摹本일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.

勿論 이 麻田影堂舊本에서 重摹 또 改摹된 摹本이라고 생각되지만 現在의 壽松洞影堂에 奉安된 影幀에 「永樂甲申九月下幹門人 陽村 權近 敬贊」이라는 原本에서 移記된 題贊이 남아있다. 이것으로 보아 原來 牧隱의 影幀은 이미 太宗四年(一四〇四)에 現存肖像들의 原本을 이루는 바탕이 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고 또 德山 李基泰氏의 舊藏肖像에는 正德甲戌의 紀年이 쓰여 있었다^② 하니 이것은 永樂甲申의 原本을 移摹했던 作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도 같다.

어쨌든 이 麻田影堂舊本에는 現在 題贊이 남아있지 않으나 그림의 古格과는 달리 이 簇子의 表具가 現代樣式으로 된 새로운 점이라던지 簇子 背面에 「麻田影堂舊本 己卯三月 日改幀 舊幀有後學 許振書贊」이라는 改幀記가 墨書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改幀하기前 原簇子에는 許振이라는 李朝人의 題贊이었던 것을 알 수 있고(追記) 이것을 改幀한 己卯三月이란 아마도 一九三九年을 意味하는 것으로 짐작이 된다. 또 여기에 并記된 메모^③를 보면 一九三九年에 이 麻田舊本을 三幅重摹해서 德山, 長湍, 平山에 各其奉安케 했음도 아울러 알게 되었다.

그러나 이 麻田影堂舊本이 現在까지 알려진 牧隱影幀中에서는 가장 古格이 있는 作品이라는 것은 이 作品自體에서도 느껴지지만 이와 함께 壽

松洞影堂에 秘藏되어 있는 또 하나의 全身像에서도 그 緣由를 찾아볼 수 있다. 즉 題贊으로 보아 ④ 嘉禎 丙戌에 이 麻田舊本系의 肖像에서 摹本됐는니라고 짐작되는 全身像에서 다시 肅宗三十七年(一七一二)에 重摹한 이 全身像은 그 像容으로 보아 上半身은 衣褶과 設彩에 이르기까지 一見해서 이 麻田舊本을 改摹한 亞流作이라는 것을 直感할 수 있게 해준다. 다만 다른것은 麻田舊本의 上半身像에 下半身을 나타낸것만이 달라졌을 뿐이다. 이 下半身을 나타내는데 대해서는 孝宗五年에 後孫李暨이 畫伯金鳴國을 시켜서 下半身像을 나타낸 肖像을 그리게 했다⑤는說이 있고 英祖三十二年에 李秀玉等이 이것을 다시 重摹해서 壽松洞影堂에 奉安했다고 한다. 그러나 現在의 壽松洞影堂奉安本은 麻田影堂舊本과는 衣褶이 凡俗해졌을 뿐만 아니라 像容도 그 傳神하는 妙法을 따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.

이로서 보던지 題贊內容으로 보던지 ⑥ 壽松洞 奉安本은 이들中에서도 가장 뒤늦은것으로서 正祖三年(一七七九)에 重摹된 것임을 알 수 있으나 題贊中 「崇禎紀元後三己亥」의 三字를 문간 자욱이 있으므로 반드시 이 紀年을 信憑할 수도 없을 듯하다.

어쨌든 이러한 여러 重摹本들과 比較해보면 이 麻田影堂舊本은 적어도 十七世紀以下로 내려갈 수가 없을것으로 생각된다. 그러나 韓山李氏宗中에서는 이 麻田影堂舊本이 壬亂때 日本軍에게 掠奪되었다가 牧隱의 外裔孫釜山僉使 呂祐吉이 通信使로 赴日했던 길에 江戶에서 이 肖像을 發見해서 奉安하고 돌아온 原本이라고 믿고 있다⑦ 그러나 이 問題에 대해서 이것을 확실히 信憑할 資料가 아직 없다고 해야겠으며 앞으로 稿를 새로히 해서 詳考해볼까 한다.

附記 添付寫眞이 不完全해서 傳神한 牧隱의 風貌를 헤아려보기 어렵게 되었음을 謝過함

註

- ① 京畿道連川郡麻田에 있는 牧隱影堂
- ② 李勲求 牧隱李穡先生傳 八八面
- ③ 「囑畫伯 崔根培 依此本謹寫三本

各奉安于 德山 樓山影堂

長端 吳李陵

平山 詠歸祠

④ 「嘉禎丙戌春外孫觀察使金希壽爲左議政李公惟清書」

「崇禎紀元後八十四年辛卯十一月 日十二代孫韓平君基泰來守長端家 廟遺像改模奉安于臨江書院」

⑤ 李勲求 牧隱李穡先生傳 八九面

⑥ 「崇禎紀元後三己亥三月上澣 後孫前大司諫敬玉書」

⑦ 許眉叟의 文集中에 事實이 摘錄되었다 하나 이를 밝힌 거를이 없 었다. (李勲求 牧隱李穡先生傳 八九面)

〔追記〕 이 改幀記는 거의 根據가 없는 것이라 宗會여러분의 말씀이 있음으로 再考하여야 할 것임.

간다라佛像의 一例

秦 弘 燮

近來에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간다라佛像을 過眼한 일이 있다(註) 獨 立된 尊像이 아니고 어느곳에서 削離한 菩薩立像으로 右側面은 上下 垂 直으로 切斷되었고 胸部以下는 刻線이 희미하다. 石質은

간다라佛 特有的의 藍 黑色의 片岩이다.

頭髮은 波狀形인 데 束髮하였으며 드

러 간 눈이나 높은 鼻 梁이나 顔面이 前面 보다도 側面이 더 넓

